| 현불 논단 |

소통하는 지도자가 '보살'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누구든 겨울나기 쉽지 않은 일
김장도 겨울 준비하는 韓 문화
코로나로 겨울은 길고 깊을 뿐

겨울 길어지면 봄은 더 기대돼
봄 첫머리 대중 위로한 연등회
지혜 등불로 나아갈 길을 밝혀

대선 후보 흠집내기 경쟁 아닌
국민들 등불 같은 비전을 바라
'다르다'는 생각 갖고 소통하길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리고 기간이 짧든 길든, 겨울을 나는 것은 쉽지 않다. 먹거리가 부족해지고,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동식물들은 가을에 들어서면 일찍부터 겨울나기 준비를 시작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래된 추억처럼 남아있는 연탄 들여놓기가 그러하고, 요즘도 대부분의 집에서 놓치지 않는 김장김치 담그기 역시 겨울나기 준비의 일환이다.

특히 김장김치 담그기는 요즘에 이르러서는 풍습의 의미가 더 강한 것처럼도 보인다. 가족이 모이고 가족이 겨울과 봄을 나는데 필요한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는 동안 가족 간의 정이 더해진다. 예전에는 겨울 동안의 생존 문제였지만, 지금이야 즐거운 풍습이면서 문화의 기능이 더 강한 듯도 보인다. 때로는 그 과정이 문화가 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어려운 고비를 넘는 옛 사람의 지혜가 발휘되는 순간이기도 했을 것이다.

옛 사람들이야 그때그때 맞추어 겨울나기를 위한 지혜라도 발휘했는데, 우리가 맞이한 코로나19라는 이름의 겨울은 그런 지혜를 사용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이제는 끝을 모르는 우울감과 피로감이 사람들을 더욱 지치게 한다. 절기상으로도 한창 겨울이다. 거기에 코로나로 지친 일상의 삶이 겨울을 더욱 길고 힘들게 한다.

겨울이 깊어지면 봄을 기다리는 기대감이 더욱 강해진다. 봄이 멀수록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다. 그 마음들을 달래고 어루만진 것이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정월의 연등회(燃燈會)였다. 부처님께서 지혜의 등불을 밝혀 중생들이 나아갈 길을 밝혔듯이, 그 마음을 따라 겨울이 절정, 봄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펼쳐지는 것이 불교국가들의 연등회였다. 왕을 필두로 하는 국가지도층이 앞에 서서 긴 겨울나기에 지친 백성을 위로하고, 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는 상징적인 국가의례가 연등회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음 5년 동안 국정을 이끌 대통령 선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와중에 많은 정쟁들도 빗발치고, 경쟁후보를 흠집 내는 일들도 빗발쳐서 지친 국민들을 더욱 피로하게 한다. 희망을 향한 한바탕 축제여도 모자랄 텐데,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도 쉽게 자행된다.

부처님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는 늘 우리 삶에 도움 그리고 희망을 보태주는 지도자를 기대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간질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해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기대한다. 다함께 걱정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지도자야말로, 긴 겨울나기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사회에 등(燈)을 밝히는 보살일 것이다.

국민들이, 그리고 중생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긴 겨울나기가 가져다 준 지치고 피로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희망, 등불 같은 비전이 아닐까. 갈등을 부추기는 편 가르기나, 상대방에 대한 흠집 내기 경쟁은 더 이상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는 명확하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각각의 해법들은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다. 옳고 틀리다기보다는, 서 있는 입장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르게 보인 결과일 것이다.

신라의 원효 스님은 서로 다른 견해와 주장에 대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의 관점에서 볼 것을 주문한다. '옳다거나 그르다'는 생각은 시비와 갈등을 부르는 씨앗이 되고, '다르다'는 생각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긴 겨울나기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기대를 반영하는 비전을 보여주려면, 소통이 먼저라는 생각을 지도자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중생의 등불이 되는 보살인 까닭이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12월 1일은 제34회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다.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이뤄졌다. 내가 회장 소임을 맡고 있는 'KINHA(한국 HIV/AIDS 범종교연합)'에서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자들의 외로움과 그에 따른 돌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애인들은 장애등록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HIV감염인들은 장애자가 되기를 오히려 원하고 있는 실정이니 환자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하고 고립돼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얼마 전 병원 법당에 다녀간 50대의 남성 환자는 약 두 시간을 대화하며 한동안 울었다. 그동안 무수히 삼켰던 깊은 회한의 눈물이리라.

뇌전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 검사를 받으면서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죽고 싶었지만 연로한 노모를 생각하며 죽을 힘을 다해 살아냈다. 반신불수로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던 몸이었지만 2년동안 눈물겨운 재활의 노력으로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됐다. 한시도 염주를 놓지 않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노모에게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다.



그림 · 최주현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가슴을 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신 거예요?"

환자는 숨을 깊게 내쉰 뒤 한참 후에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 동생만 알아요. 제 동생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와서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동생도 이해를 못하는데 누가 저를 이해하겠습니까."

"거사님, 가족들로부터 정말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거사님, 스스로는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계실까요?"

환자는 깜짝 놀란 듯 눈물을 멈추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같은 하늘 아래에 살면서 우리 모두는 다 아프고 저마다의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또한 하나의 병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이 병을 화두 삼아 '진짜 거사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병이 낫는 것이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해요."

환자는 부처님 전에 정성스레 삼배를 올리고 떠나갔다. 배웅하러 병원 밖에까지 함께 걸었다. 합장하며 몇 번을 돌아보는 환자를 보내며 하늘을 올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전통문화 보존, 불교 책무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상정해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이 전통문화 홀대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 표 예산안은 '슈퍼예산'으로 지칭될 만큼 대규모였지만, 전통문화 보존 · 전승을 위한 증액요청은 사실상 묵살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 예산증액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증액안'은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20%로 책정됐던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자부담율도 애초 논의됐던 10%가 아닌 5% 경감에 그쳤다.

이번 예산안 증액은 불교계 요청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불교이익보다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유사찰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보존전승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단 불교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찌보면 유구한 세월 이어져 온 우리민족의 역사문화와 전통이기에, 여러 규제와 법적인 제약에도 이를 감내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시선이 더 불편한 이유는 또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 및 왜곡발언이 이미 한차례 불교계에 상처를 준 바 있다. 당차원에서 이를 사과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불교계 노력에 감사한다.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공언까지 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와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문화 예산이 불교가 아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보하는 비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템플스테이 20주년에 거는 기대

내년 템플스테이가 운영 20주년을 맞는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의 불교문화를 세계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으며, 2002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직지사에서 진행된 주한외교사절단 템플스테이가 시초다. 이제 성년을 앞두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전통문화관광콘텐츠가 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8~10일 진행한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에서 20주년 사업 기조와 방향을 발표했다. 대국민 감사 이벤트부터 기념식, 세미나까지 다양한 행사와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내년 11월 선포 예정인 리뉴얼 템플스테이 브랜드에 대한 기대는 크다.

2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는 성과만큼 해결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실제 템플스테이를 '문화'가 아닌 '종교'로 인식하는 대중들의 편견부터 체험관광 상품으로 부상하는 중국, 일본의 템플스테이까지 안팎으로 위협 요소들이 적지 않다.

연수에서 이뤄진 정책 연구 세미나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제 템플스테이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영 품질 관리와 인력 지원 강화, 사회 공공성 확대와 같은 제언들은 주목해야 한다. 또한 운영사찰들도 개방적인 사고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템플스테이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됐다. 더 발전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은 필수다. 무엇보다 대중들의 니즈와 시대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밝은 눈이 필요하다. 내년이 템플스테이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